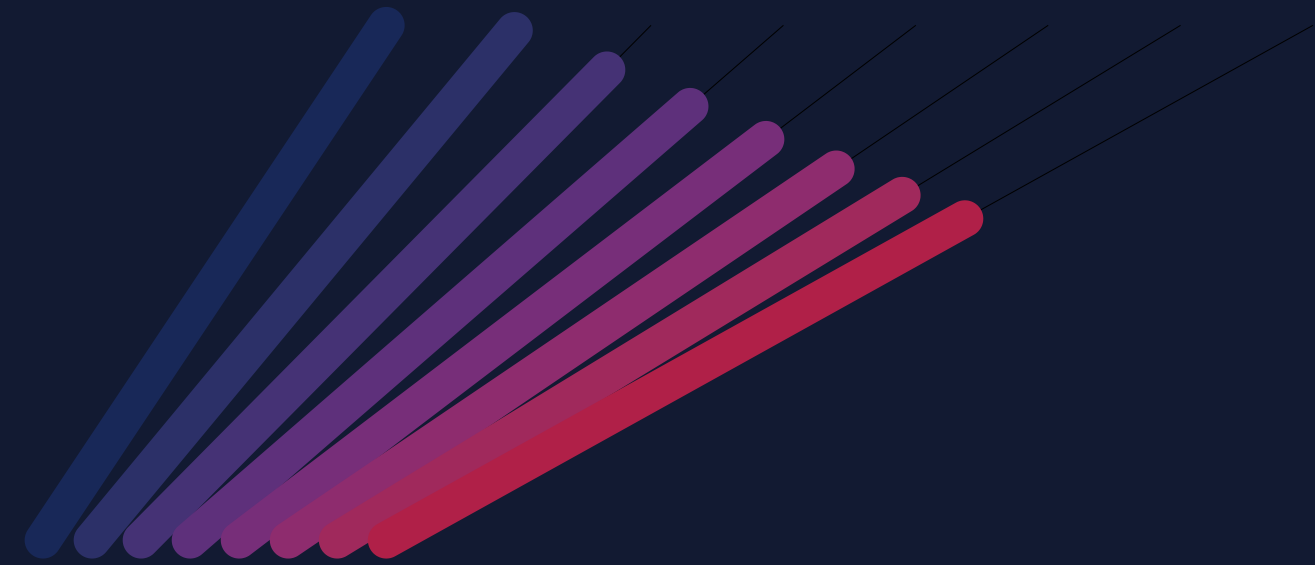




AX 디자인팩토리 부트캠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 온라인 과정

AI에게 시킨 것을 남 에게 설명하는 법

7강 · AI에게 시킨 것을 남에게 설명하는 법

과목	차시	길이
AI 활용 협업·커뮤니케이션	1 / 4	27분

도입

오늘 정하는 것

이 편이 끝나면 한 문장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결과가 직관을 깰 때 시킨 것을 남에게 설명하는 네 칸을 말할 수 있는가

네 칸 중 하나라도 비면, 설명이 아니라 주장이 됩니다.

도입

이 편이 끝나면 보는 것

「설명 한 장」 - 시킨 것·나온 것·다른 이유·확인한 범위, 네 칸이 다 채워진 완성본 (재구성)

소재 - 04-3 결과(업소 수·인구 만명당 순위) · 확인일 2026-09-06

설명이 어려운 자리 — 네 칸

이론

6분

소재 없이 — 어디서든 쓰는 이야기

설명이 어려운 것은 결과가 직관을 꺾을 때입니다.

결과가 예상과 같으면 설명은 짧아도 됩니다. 예상과 다르면 짧은 설명은 반박만 부릅니다.

결론부터 말한 사람과 순서대로 말한 사람

결론부터 말하는 사람

“이게 결과입니다”로 끝낸다

- 반박이 설명보다 먼저 온다
- 왜, 무엇을 기준으로 그런지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는다

네 칸으로 말하는 사람

시킨 것부터 확인한 범위까지 짚는다

- 반박이 질문으로 바뀐다
- 넷째 칸(확인한 범위)을 비우지 않는다

네 칸을 채우는 순서

- 1 시킨 것 — AI에게 준 지시를 원문 그대로 적는다
- 2 나온 것 — 결과를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옮긴다
- 3 다른 이유 — 분모·정의·시점 중 무엇이 같았는지 짚는다
- 4 확인한 범위 —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을 같이 적는다

04-3의 결과를 팀원에게 설명한다

시연

14분

순서를 틀리면 반박이, 순서를 지키면 질문이 온다

절대값 순위가 밀도로는 묶음으로 들어진다 (재구성)

정제 후 업소 수 - 서구 27,509 (1위) · 유성구 18,949 (2위) → 인구 만명당 (04-3) - 서구 592.3 · 중구 596.9 마진 0.77%로 「위 묶음」, 유성구 509.6 · 대덕구 512.7 마진 0.6%로 「아래 묶음」(순위 번호를 발화하지 않는다). 팀원 첫 반응 "유성구가 제일 붐비는 동네 아니었어?"

업소 수 · 인구 만명당 - 04-3 결과(정제 후 79,957행 · 인구 원표 2026-07) · 확인일 2026-09-06

결론부터 말하면 반박이, 네 칸이면 질문이 온다 (재구성)

"유성구가 꼴찌"부터 말하면 반박 먼저 옴 → 네 칸 순서(시킨 것 "구별 업소 수를 세고 인구로 나눠 달라"→나온 것 두 순위표→다른 이유 "분모가 인구, 유성구 인구 371,855명(다섯구 중 둘째, 합 1,442,190명)"→확인한 범위 "정제 후 79,957행·인구 2026-07 원표·중구-서구 마진 0.77%로 1위 단정 안 함, 대덕-유성도 마진 0.6%로 아래 묶음")

04-3 결과·마진 0.77%(중구-서구)·0.6%(대덕-유성) - 확인일 2026-09-06

업종을 좁히면 묶음이 또 바뀐다 + 전공이 드러나는 곳 (재구성)



“설명하는 글 써 줘”의 함정 (재구성)

AI에게 "이 결과를 팀원에게 설명하는 글을 써 줘"만 시키면 확인한 범위 칸 없이 "유성구는 상권이 침체된 지역으로 보입니다"가 사실처럼 끼어듦 (코드블록, 재구성) → 인물이 그 문장을 지우고 네 칸으로 다시 쓴 완성본

시킨 것부터 확인한 범위 까지, 네 칸이 설명이다

정리

AI가 그렇게 했다는 말은 설명이 아닙니다. 시킨 것부터 확인한 범위까지, 네 칸이 설명입니다.

다음 차시

다음은 7-2 「회의·문서·보고 — AI가 실제로 줄여주는 자리」입니다.

배웠는지 재는 질문 — 이 결과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팀원이 무엇을 되물겠습니까?

